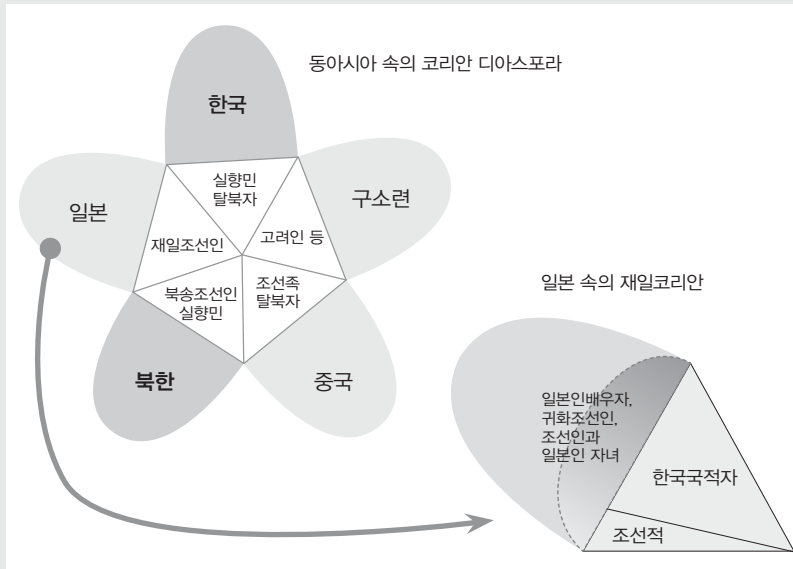


1/ 디아스포라론과 동아시아 속의 재일코리안

신기영



저자 작성

신기영(申琪榮)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미국 워싱턴대학 정치학박사. 일본학술진흥회 외국
인특별연구원을 거쳐 2008년부터 일본 국립 오차노미즈여자대학 대학원 준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학원 및 젠더연구소). 연구분야는 젠더와 정치, 페미니즘 이론, 비교일본사회 등이다. 최근의
공저로 *The Oxford Handbook of Feminist Theory* (Oxford U. Press, 2015), *Gender and
Power* (Palgrave Macmillan, 2015), 『ジェンダー・クォータ: 世界の女性議員はなぜ増えたのか』(明石
書店, 2014) 등이 있으며, *Pacific Affairs* (2016, June), *Politics&Gender* (2015),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014) 등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과제번호 NRF-2008-362-B00006).

1. 들어가며

이 글은 재일코리안의 역사와 현재 및 집단적·개인적 경험을 이해하는 개념틀로서 디아스포라론이 가지는 유용성과 한계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와 패전, 그리고 전후 남북 분단의 냉전시대를 걸쳐 형성된 재일코리안의 역사는 이제 100년을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재일코리안은 내부적으로 다양화되었고, 도일 1세대가 저물고 3, 4세가 핵심으로 등장하는 긴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일코리안을 이해하는 방식도 그만큼 다양해졌으며, 한국학계에서도 뒤늦게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아마도 재일코리안을 이해하는 가장 일반적인 시각은 일본 내의 차별받는 소수민족집단이라는 것일 것이다. 이는 국민국가로의 동화압력이 강하고 거주외국인을 배제하는 정책과 이념을 가진 정주국 일본에서 살아온 재일코리안 당사자들의 저항적 정체성이기도 하다. 피차별 소수민족 정체성은 부락민이나 아이누, 오키나와 주민과 같은 다른 소수집단과의 연대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 식민지 지배를 한 국가에 계속해서 거주하게 된 재일코리안들은, 한편으로는 정주국에 완전히 정착하여 다수집단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에 떠나왔으며 미래에 귀환할 수 있는 모국(그것이 현실적인 존재든 상상 속의 고향이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국가 내의 다른 소수집단과는 다르다.

또한, 일본사회에서 과거부터 거주해온 외국인들(재일조선인¹이나 대만인과 같이)을 울드커머라고 별도로 명명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일코리안은 초국가적 월경으로 대변되는 국제이주자 집단과도 차별된다. 선행연구들

1 이 글에서는 '재일코리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이 글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재일조선인'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특수한 역사성과 단일한 집단정체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을 피하고, 해방 이후에도 한반도와 일본 사이의 지속된 이동에 의해 일본에는 한반도에 뿌리를 둔 다양한 집단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기 위해서 '재일코리안'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재일조선인'은 일반적인 용어로서 정착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이 지적하는 것처럼, 탈냉전기의 일본과 한국에서 나타난 다문화사회 정책의 조류는 1990년대 이후 이주한 이민 및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궁극적인 목표는 통합과 동화를 통해 이주자들을 국민국가의 일원으로 포섭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일코리안은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일본사회에서 가장 주류사회에 동화된 외국인 집단이면서도² ‘굳이’ 외국인집단으로 남아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해왔다. 오늘날까지 정주국 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재일코리안에게 정주국 국민으로의 동화나 귀화를 통한 제권리 획득은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초국가적 이주집단이나 국민국가 내의 소수민족집단이라는 분석시각은 양자 모두 재일코리안의 이주와 정주, 그리고 정체성을 설명하기에 충분치 않다. 이러한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 재일코리안을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이해하는 방식이 비교적 최근에 등장했다.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론은 한국과 일본을 막론하고 재일코리안 지식인들이 주요 담론 생산자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서구학계에서 부상한 디아스포라론에의 관심을 배경으로, 그리고 탈냉전기를 맞아 다양한 재외코리안과의 접촉이 잦아지면서, 그동안 특수한 사례로 간주해온 재일코리안을 디아스포라라는 보편적인 이론적 지평에서 재인식하기 시작했다.³ 한국 정부도 해외의 한민족 인적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외코리안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디아스포라론을 통해 재일코리안을 재조명하려는 시도는 다양한 입장과 동기를 배경으로 점차 재일코리안

2 재일코리안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해서는 이번 호의 히구치 나오토의 「재일코리안의 직업적 지위의 동태: 인구 센서스 데이터로 보는 1980~2010년의 변화」 참조.

3 디아스포라는 우리말로 '민족분산' 또는 '민족이산'으로 번역되는데, 국내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코리안 디아스포라 연구가 태두했다. 그러나, 초기의 연구는 주로 재외동포나 한민족 공동체론 등과 같은 민족주의적이고 정책적 필요성이 주도한 경향이 있었다. 2000년대 이후 초국가적인 이주와 정주집단을 포함하는 확장된 디아스포라 개념에 영향을 받아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개관하는 연구들이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 제37집 4호, 2003; 허성태·임영연, 『글로벌 디아스포라와 세계의 한민족』, 북코리아 2014 등. 또한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에서 한인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한 연구성과를 자체 학술지를 통해 발행하고 있다. 재일코리안에 대해 주목한 연구는 한일의 재일코리안 연구자들을 제외하면 청암대 재일코리안 연구소가 발행한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형성: 이주와 정주를 중심으로』, 선인, 2013가 있다.

을 이해하는 중요한 이론적 틀로서 정착되고 있다.

그렇다면 디아스포라론은 재일코리안의 역사와 현재를 조명하기 위해 어떠한 구체적 유용성을 제시하였는가? 지금까지의 분석틀과 달리 디아스포라론이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적 가능성은 무엇이며, 디아스포라론을 통해 재일코리안의 이주과 정주, 그리고 정체성을 분석하는 것이 어떻게 재일코리안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가?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먼저 1990년대 이후 급속히 부상한 디아스포라 연구가 어떠한 논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논점들이 재일코리안을 이해하는 데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고찰한다. 이어 디아스포라론의 시점에서 이루어진 국내외의 최근 재일코리안 논의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로서의 재일코리안 연구가 이론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평가해본다.

2. 디아스포라 개념과 주요 논점

1) 디아스포라의 정의

디아스포라는 2300년의 역사를 가진 개념이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 개념은 기원전 250년경에 고대 유대민족이 전쟁에 패한 후 고향을 떠나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이산의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 처음 사용한 그리스어에서 유래한다.⁴ 이들은 강제적으로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서 정주하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공유하고, 미래의 귀환에 대한 종교적인 해석을 통해 민족적·문화적 공동체를 유지했다. 따라서 전통적인 의미의 디아스포라는 추방, 퇴거, 슬픔, 피해 그리고 낙약함 등과 연관된 개념이었다. 반면 민족국가가 존재양식의 규범이

4 Khachig Tölölyan, "The Contemporary Discourse of Diaspora Studies," *Comparative Studies of South Asia, Africa and the Middle East* 27(3), 2007, pp. 647~655.

된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면 디아스포라는 민족국가 형식이 일반화되기 이전부터 하나의 정치공동체의 경계 밖으로 흩어진 복수의 민족적 유대집단을 가리킨 것으로 초국가적인 존재양식의 전형이기도 했다. 이렇게 유대인의 세계 확산을 의미하는 용어였던 디아스포라는, 1960년대부터 유대인의 특수한 경험에 국한되지 않고 민족이산을 겪은 다른 초국가적 집단들의 경험을 기술하는 보편적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당사자 스스로 명명한, 또는 연구자에 의해 연구대상으로 명명된 초국가적인 디아스포라가 약 36개 존재한다고 한다.⁵

디아스포라가 이렇게 어원적이고 원론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서구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1년 학술잡지 *Diaspora*의 창간⁶이 계기였다. 이를 통해 디아스포라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산발적으로 다루던 연구대상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학술 담론의 대상이 되었고, *Diaspora*는 이들 담론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 한편 디아스포라 개념은 민족, 종족, 인종, 이주, 그리고 탈식민주의를 다루는 개별연구 분야 내에 새롭게 등장한 초국가적·지구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도 주목받게 되었다.⁷ 따라서 디아스포라는 처음부터 체계적인 이론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와 방법론을 중심으로 하는 학제간 연구를 전제로 한 기술적(descriptive and heuristic) 개념이다.

Diaspora 창간호에서는 유대인의 경험이라는 어원적 제한을 탈피하여 디아스포라를 고국에서 추방된 모든 소수민족집단을 연구하는 이론적 개념으로 보편화하려는 시도들이 제안되었다. 널리 인용되고 있는 사프란의 디아스포라의 정의를 다시 확인해보면,⁸ 1) 특정 중심지에서 복수의 주변지역, 또는 해외지역으로 이산, 2) 집단적 기억, 전망, 또는 신화의 보유, 3) 정

5 Khachig Tölölyan, "The Contemporary Discourse of Diaspora Studies," p. 648.

6 *Diaspora: A Journal of Transnational Studies*는 1991년 창간하여 2009년 가을호 18(3)를 끝으로 정간되었다.

7 Khachig Tölölyan, "The Contemporary Discourse of Diaspora Studies," p. 647.

8 William Safran,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 1(1), 1991, pp. 83~99.

주국에 완전히 수용될 수 없다는 믿음과 그로 인한 소외감 및 정서적 상처, 4) 조상의 모국이 진정하고 이상적인 고향이며 귀환의 장소라는 생각, 5) 모국의 안전과 번영, 유지를 위한 헌신, 6) 민족의식에 기반한 모국과의 개인적·대리적인 유대에 대한 헌신과 같은 요소들이 디아스포라를 정의하는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물론 오늘날의 많은 유대인 집단조차도 이 조건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는 못하며, 특히 모국에의 귀환이나 유대감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거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이들 조건은 디아스포라 개념이 무한정 확대되어 분석틀로서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주와 초국가주의 연구에 천착하는 최근의 연구들은 초국가적 이주자들에 의한 해외의 정주집단이나 비자발적 이산뿐 아니라 자발적인 이민까지 광의의 디아스포라 개념에 포함시킨다. 초국가적 경제 네트워크와 노동이민집단도 포함하는 추세다.⁹ 또한 디아스포라의 초국가적 성격에 주목하여 사프란의 개념에 지리적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간의 연대와 네트워크를 요건으로 첨가하기도 한다.¹⁰

디아스포라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용됨에 따라 그 개념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 또한 등장했다. 이에 대해 한편으로는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더욱 정치하게 하려는 논의가 이어졌고,¹¹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 민족이산 모델을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디아스포라가 형성되는 과정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개념화가 시도되었다.¹² 이주연구와 초국가주의의 접점과 차이점들을 비교함으로써 디아스포라의 개념적·이론적 유용성을 실험하기도 했다.¹³

9 Robert Cohen, *Global Diasporas: An Introduction*, London: UCL Press, 1997.

10 Kim D. Butler, "Defining Diaspora, Refining a Discourse," *Diaspora* 10(2), 2001, pp. 189~219.

11 예를 들면, Kim D. Butler, "Defining Diaspora, Refining a Discourse"; Rogers Brubaker, "The 'Diaspora' Diaspora," *Ethnic and Racial Studies* 28(1), 2005, pp. 1~19; Khachig Tölölyan, "Rethinking Diaspora(s): Stateless Power in the Transnational Moment," *Diaspora* 5(1), 1996, pp. 3~36 등.

12 Kim D. Butler, "Defining Diaspora, Refining a Discourse."

13 Nadja C. Johnson, "Global Journeys: From Transnationalism to Diaspora," *Journal of International & Global Studies* 4(1), 2012, pp. 41~58. 다른 논저로는 Rogers Brubaker, "The 'Diaspora' Diaspora."

초기 디아스포라론에서 그 개념의 유연한 확대를 주장했던 툴료얀(K. Tölölyan)은 디아스포라 논의에 내포된 긴장관계의 축들을 정리하고, 확산(dispersion)과 디아스포라를 혼용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¹⁴ 특히, 원거주지로부터 타 지역으로 흩어진 모든 이주집단을 디아스포라로 간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평하며, 디아스포라는 다양한 이유로 타 지역으로 분산된 집단이나, 이주에 의해 형성된 이민자 집단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의 수평 이동이나 단순한 월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디아스포라는 특수한 형태의 이동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러한 이산의 경험이 디아스포라 민족집단 간의 연대와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산에 대한 집단적 트라우마 경험의 공유, 그리고 이에 대한 기억, 애도, 추모와 같은 감정적 공감이가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며, 디아스포라 문화 생산의 근간 및 모국에 대한 정치적 헌신의 동력이 된다.¹⁵

따라서 디아스포라는 정주국의 입장에서는 소수민족의 하나지만 모든 소수민족이 디아스포라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소수민족집단에는 모국과의 연계 및 다른 국가 내의 동일 민족집단과의 연계를 유지하려는 노력 및 소수민족집단으로서의 자신만의 차이를 유지하고 이를 스스로 표상하려는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 반면, 디아스포라에게 모국의 회복과 귀환은 무엇보다 중요한 담론이다. 이를 위해 다른 지역의 디아스포라 및 모국과의 관계 형성에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헌신한다. 물론 이때의 귀환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영구적인 귀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귀환은 수사학적인 것일 수도 있고, 여행, 송금, 문화교류, 또는 모국을 위한 정치적 로비와 같은 모국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의미할 수도 있다.¹⁶

툴료얀은 이러한 노력들이 집단정체성에 대한 자각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이러한 자각이야말로 모국으로부터 흩어진 집단들을 묶어내는 중요한

14 Khachig Tölölyan, "Rethinking Diaspora(s): Stateless Power in the Transnational Moment."

15 Khachig Tölölyan, "Rethinking Diaspora(s): Stateless Power in the Transnational Moment."

16 Khachig Tölölyan, "The Contemporary Discourse of Diaspora Studies," pp. 652~653.

열쇠이며 모국 자체가 상실되거나 직접적 이산의 경험을 겪지 않은 다음 세대에까지 디아스포라가 독립적인 민족문화 집단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 톨외안은 디아스포라 민족집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가능한 한 정주국에 동화하지 않으면서 정주국 사회와의 통합과 시민적 권리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 자기 공동체의 경계를 감시하며 공동체 구성원 간의 혼인을 장려하고 모국어를 유지하고자 하며, 전통을 철저히 지키며 혼종화(hybridized)되었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정체성에 충실성을 보인다. 그들의 문화적·정치적인 표상은 조직적·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되어 재생산되고, 그러한 재생산은 예술가, 정치가, 종교지도자, 또는 대중 친화적인 엘리트 집단들에 의해서 수행된다.¹⁷

따라서 디아스포라의 공통된 특성은 1) 이산의 경험(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2) 민족적인 정체성(종족적 또는 문화적), 3) 모국(현실적 또는 상상적 의미에서)과의 관계유지로 집약된다.¹⁸ 시공간적인 축을 중심으로 보면, 1) 이주(이산), 2) 정주, 3) 모국을 포함한 초국가적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형성의 세 단계로 분류되기도 한다.¹⁹ 이들 디아스포라론은 디아스포라를 민족국가로 환원할 수는 없지만 민족국가와의 관계 내에서 공존하고 있는 복수의 초국가적인 민족집단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고 보며, 다양한 디아스포라의 성격은 모국-디아스포라-정주국의 삼각구조(triad relation) 내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17 Khachig Tölölyan, "The Contemporary Discourse of Diaspora Studies," p. 650.

18 브루베이커는 공간적 확산, 모국지향, 경계유지(정체성)로 요약했다. Rogers Brubaker, "The 'Diaspora' Diaspora."

19 Kevin Kenny, *Diaspora: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물론 디아스포라는 반드시 단선적으로 세 단계를 시기별로 거치는 것만은 아니며, 정주를 거치지 않고 또 다른 디아스포라로 이동하거나 정주국에 동화되어 정체성을 잃기도 한다.

2) 구조적 조건으로서의 삼각구도

모국-디아스포라-정주국의 삼각구도는 전형적인 형태의 디아스포라의 외부구조적 조건이다. 삼각구도 속에서 디아스포라를 이해하려는 태도는 디아스포라를 하나의 독립된 정치, 경제적인 단위 행위자로 간주하고, 모국 및 정주국과의 물질적·사회적 관계 내에서 디아스포라의 역할을 이해하려는 입장이다. 이는 모국-디아스포라-정주국 사이의 사회, 정치, 그리고 경제적 관계의 다양한 측면에서 행위자로서의 디아스포라의 역할과 성격을 강조한다. 이러한 시각은, 특히 국제정치학이나 안보, 분쟁연구 분야에서 국가단위들만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국가 외부의 민족집단의 역할이 국제정치, 경제적 행위자의 하나로 등장하면서 주목받게 되었다.²⁰

디아스포라는 정주국으로부터는 정주국의 주권 내에 존재하는 소수민족집단이라는 논리에 의해 충성을 요구받고, 모국으로부터는 국가의 지리적 경계 밖에 있는 민족의 일부로서(outside the state, but inside the people)²¹ 명시적·암묵적 충성을 요구받는, 하나의 국가로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 국민 국가 사이의 위치를 점하게 된다. 예를 들면, 모국은 정주국과 분쟁 시에 디아스포라가 모국을 위하여 기여하기를 바라며, 평상시에는 모국의 경제를 위한 자원과 노동의 공급을 기대하기도 한다. 또한 반대로 모국이 디아스포라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디아스포라를 직접 지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디아스포라와 모국과의 관계는 정주국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특히 모국과의 연대가 강하다고 여겨질 때, 정주국 내의 이질적 집단으로 간주되어 경계와 차별의 대상이 되기 쉽다.

반면, 디아스포라 역시 초국가적 비정부단체를 결성하여 독자적인 활동을 통해 정주국에 대한 입지를 확보하거나, 정주국 또는 모국의 국내 및 외

20 Benedict Anderson, *The Spectre of Comparisons: Nationalism, Southeast Asia and the World*, London: Verso, 1998; Gabriel Sheffer, "A New Field of Study: Modern Diasporas in International Politics," Gabriel Sheffer ed., *Modern Diasporas in International Politics*, London: Croom Helm, 1986, pp. 1~15.

21 Yossi Shain & Aharon Barth, "Diaspora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Organization* 57(3) 2003, p. 451.

교 정책에 대한 로비활동을 전개하는 정치적 압력단체를 형성하기도 한다.²² 때로는 모국의 요청에 응답하여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으로 모국에 노동력을 공급하거나 자본을 투자하기도 한다.²³ 이렇게 독립적인 행위자로서의 디아스포라는 정주국의 소수자이면서도 독립된 정체성과 이해관계를 주장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국가 개념과 시민권, 충성과 같은 개념에 도전적인 존재가 된다. 모국과 정주국 사이에서 디아스포라가 가지는 분할되고 불완전하며 이중적인 충성심의 문제는, 민족이산의 발생지며 미래 귀환의 대상인 모국과의 민족적 유대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 정체성은 디아스포라를 둘러싼 삼각구도의 구조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정체성으로, 디아스포라에 대한 정주국과 모국의 태도 및 실질적 영향력을 둘러싼 경쟁 관계에 의해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삼각구도의 모국-디아스포라, 정주국-디아스포라, 모국-정주국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디아스포라를 둘러싼 정치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물론, 모든 디아스포라가 삼각구도 내에서 독립적인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디아스포라가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모국의 국내 정책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디아스포라와 모국과의 세력균형 관계에 의해 크게 달라진다. 즉, 디아스포라가 모국의 정책에 영향을 주는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기, 기회 그리고 실질적 수단이 모두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때 디아스포라의 의지와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능력은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를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조직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때 정주국 레짐이 중요)와 모국의 정치체제가 디아스포라의 영향력에 얼마나 열려 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즉, 디아스포라의 영향력은 디아스포라 집단의 동기, 모국과 정주국의 사회정치적 성격, 그리고 디아스포라와 모국의 힘의 관계에 의해

22 Gabriel Sheffer, "A New Field of Study: Modern Diasporas in International Politics"; Gabriel Sheffer, *Diaspora Politics: At Home Abroa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Yossi Shain & Aharon Barth, "Diaspora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23 Inbom Choi, "Korean Diaspora in the Making: Its Current Status and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Fred C. Bergsten & Inbom Choi eds., *Korean Diaspora in the World Econom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3. 중국화교나 유대인, 인도의 디아스포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서 규정되는 것이다(이 모두는 물론 상호연결되어 있는 요소들이다).²⁴ 일반적으로 모국이 민주적이고 정주국이 포용적이며 디아스포라가 정체성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결집된 집단일 때, 모국의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²⁵

3) 디아스포라 의식과 정체성

디아스포라론의 또 다른 연구방향은, 디아스포라의 객관적 조건이나 통일된 집단(entity)으로서의 행위양태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담론적 실천이나 정체성 형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이들은 디아스포라를 하나의 역사를 가진 동질적인 민족집단으로 간주하면 디아스포라 내부의 다양성이나 대립구도, 민족적 특성(ethnicity)을 본질화하게 되면 누가 그 집단에 속하는지(정주국에 완전히 동화되었지만 민족적 루트를 가진다고 간주되는 이들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등에 대한)와 같은 경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브루베이커(B. Brubaker)는 디아스포라를 존재론적 실체나 인구학적 사실로서가 아니라 디아스포라적인 입장, 주장, 기호, 담론적 기획 및 실천으로 보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주장한다.²⁶ 베르토벡(S. Vertovec)도 통일된 집단(entity)으로서의 디아스포라론 이외에 인식(type of consciousness) 및 문화생산양식(mode of cultural production)으로서의 디아스포라론을 중요한 흐름으로 소개한다.²⁷

이민집단의 동화를 강조하는 민족국가의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볼 때, 디아스포라 집단은 국가 외부의 어디에선가 온 이민집단과는 다르다. 이민자들은 그 민족국가가 새로운 고향이 될 것을 전제로 하지만, 모국에 대해 정서적인 충성심을 유지하고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같은 민족집단과 실질적인 연계를 유지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집단을 정주국의 동화정책으로 완전히 동화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디아스포라 정체성은 집단적 이산과 역사에

24 Yossi Shain & Aharon Barth, "Diaspora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p. 462.

25 Yossi Shain & Aharon Barth, "Diaspora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p. 466.

26 Rogers Brubaker, "The 'Diaspora' Diaspora."

27 Steven Vertovec, "Three Meanings of 'Diaspora,' Exemplified Among South Asian Religions," *Diaspora* 7(2), 1999, pp. 277~297.

대한 기억, 고향의 상실과 정주국에서 타자로서 겪는 소외에서 오는 고통에 기반한다. 이렇게 “이산과 폭력적 상실의 집단적 역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정체성을 가진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은 새로운 민족국가집단 내로 포섭하는 것만으로 ‘치유’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특히 그들이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구조적 편견의 희생자인 경우에 더더욱 그러하다.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긍정적인 발현은 민족국가의 규범적인 영역과 시공간(신화/역사) 밖으로 확장”²⁸ 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클리포드(J. Clifford)는 정주국 밖으로 형성한 복수의 정서적·실질적 애착으로 인해 디아스포라의 문화와 이념은 필연적으로 한 국가의 영역을 넘어선 초국가적인 네트워크 안에서 펼쳐지며, 정주국에 대한 적응과 동시에 저항의 실현이 코드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²⁹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많은 실존하는 디아스포라의 개인들에게 모국으로 귀환할 의사는 거의 없으며, 그러한 가능성이 디아스포라로서의 존재 근거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디아스포라의 개인들에게 모국의 의미와 모국과의 만남의 경험은 다양하며, 또한 정주국과의 접촉과 타협의 방식도 일률적이지 않다. 따라서 정체성은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의의식이라고 하는 문화연구의 이론적 전제하에서는, 모두가 공유하는 고정적이고 단일한 집단적 디아스포라 정체성이란 불가능하다. 디아스포라 집단 내부에서도 그 사회를 가로지르는 젠더, 계급, 연령, 섹슈얼리티의 규범과 교차하면서 서로 다른 디아스포라 정체성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정주국의 주류집단과 대비시켜 그 차이를 강조한 획일적인 디아스포라의 집단정체성은 그 속에 대표되지 못한 내부의 다른 정체성을 억압하는 기제가 된다.³⁰

이렇게 집단 내부의 다양한 정체성과 디아스포라적인 의식의 존재에 주

28 James Clifford, "Diasporas," *Cultural Anthropology* 9(3), 1994, p. 307.

29 James Clifford, "Diasporas."

30 신기영, 「마이너리티 이론의 고찰: 비본질적, 포괄적 연구를 위하여」, 『일본비평』 제8호, 2013, 22~51 쪽. 또한,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은 남성들의 이산과 정주 경험에 기초하여 형성되어왔으며, 이는 디아스포라 내부의 가부장성을 본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지적도 중요하다. "Editorial: Gendering Diaspora: Transnational Feminism, Diaspora and its Hegemonies," *Feminist Review* 90, 2008, pp. 1~8.

목할 때,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복합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디아스포라 정체성은 정주국에 동화를 거부하는 적극적·방어적 의미의 민족적 정체성과 정주국에 정주하는 타자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특징을 가진다. 예를 들어, ‘집 잃은 자’(homeless), ‘반난민’(半難民)과 같이 차별이나 소외, 배제와 같은 상황이 강조된 타자적이고 부정적인 정체성도 가지게 되지만,³¹ 정주국에 포섭되지 않고 경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계를 넘어서는 초국가적 디아스포라 정체성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은 모국이나 다른 디아스포라 집단과의 초국가적인 연대를 위한 디아스포라 집단이나 개인들의 적극적인 정체성 전략으로 선택되기도 한다.³² 정주국에서 주변적인 위치에 존재하게 되는 디아스포라 개인이 내포하는 복수의 혼용(hybridity)된 문화정체성이나 이중인식(double-consciousness)은 이러한 정체성 정치의 중요한 자원으로 지적되어왔다.³³

4) 역사적 과정(process)으로서의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의 민족성을 주어진 것으로 본질화하지 않으면서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정체성에 매몰되지 않는 방식으로 디아스포라의 형성, 변화의 과정에 천착하는 입장이 있다. 디아스포라론이 특정한 민족적 경험과 특성을 전제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는 디아스포라 자체가 역사성을 가지고 내·외부적인 조건과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점을 잊기 쉽다. 디아스포라는 과거부터 이미 그렇게 존재하는 실체

31 Sonia Ryang, "Introduction," Sonia Ryang & John Lie eds., *Diaspora Without Homeland: Being Korean in Jap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9; 서경식, 임성모·이규수 옮김, 『난민과 국민 사이: 재일조선인 서경식의 사유와 성찰』, 돌베개, 2006 등.

32 대표적인 연구로 Stuart Hall,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Jonathan Rutherford, Lawrence & Wishart eds., *Identity: Community, Culture, Difference*, London: Lawrence & Wishart, 1990, pp. 222~237; Paul Gilroy, *The Black Atlantic: Modernity and Double Consciousness*, London: Verso, 1993.

33 이러한 디아스포라적인 정체성 형성 공간은 반드시 물리적인 공동체나 모국과의 직접적 만남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 베르트백은 디아스포라 문화생산의 중요한 매체로 인터넷이나 미디어와 같은 가상공간을 들고 있으며, 블랙 디아스포라론자들도 레게음악이나 문화적 매개체를 통한 디아스포라인들의 정체성의 형성, 변화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가상공간을 통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구성원들과 함께 향수와 문화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디아스포라의 문화를 생산, 공유해 나갈 수 있다.

가 아니라, 특수한 역사와 형성과정을 통해 이산 및 정주의 과정을 거쳐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이다. 삼각구도 내에서 왜 특정 디아스포라가 현재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지, 디아스포라의 개인들이 어떻게 특정한 경험을 하고 차별적인 정체성을 선택하게 되는지에 대한 탐구는 역사성에 바탕을 둔 디아스포라화(diasporization)의 과정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시각에서는 디아스포라를 과거부터 존재해온 특정한 마이너리티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로서의 실체를 통해 특정 집단이 디아스포라로 구축되는 과정에서 현재화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시각을 가질 때 디아스포라를 영속적인 특징을 가진 실체로 본질화하지 않고 디아스포라가 구축되어온 역사적 맥락과 지정학적 공간의 의미를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버틀리(K. Butler)는 다른 소수민족집단과 디아스포라를 구별하기 위해 전통적인 디아스포라의 삼각구도의 중요성을 받아들여, 디아스포라를 디아스포라로 불릴 수 있는 특수한 형태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재개념화하려 한다.³⁴ 버틀리는 주어진 집단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측면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³⁵

- 이산의 원인과 조건
- 모국과의 관계성
- 정주국과의 관계성
- 디아스포라 집단 간의 상호관계성
- 다양한 디아스포라 간의 비교연구

예를 들어, 이산의 이유와 조건으로 포로(captivity), 국가 소멸로 인한 망명(state-eradication exile), 강제적 및 자발적 망명(forced and voluntary exile), 이민(emigration), 이주(migration), 제국건설 디아스포라(imperial diaspora)와 같이 유형화를 시도했다. 이러한 초기 이산의 조건과 과정은 디아스포라화의 과정에서 모국과의 관계성이나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형성과 경험방식에 중요한 요

34 Kim D. Butler, "Defining Diaspora, Refining a Discourse," p. 194.

35 Kim D. Butler, "Defining Diaspora, Refining a Discourse," p. 195.

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네 가지의 관계성은 디아스포라화의 과정에서 상호연관성을 가지는 서로 다른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화는 다양한 디아스포라를 개별적인 역사의 특수성에 매몰시키지 않고 디아스포라의 형성과 정주단계에 있어 상호 비교가능한 전형을 제시하여, 디아스포라의 성격과 정치학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 시간축(역사, 세대)과 공간축(집주지, 초국가적 네트워크)을 모두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러한 디아스포라화의 과정은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가정한 단선적인 디아스포라 생애주기와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버틀러도 지적하고 있듯이 디아스포라의 긴 역사를 고찰하면 초기세대와 후기세대(4세 이후)³⁶는 매우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지만 후기세대는 모국과의 관계성을 새롭게 규정하거나, 다른 지역 디아스포라들과의 관계성을 통해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유지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모국에의 귀환³⁷이나 세대간의 차이 및 상호 관계를 좀 더 정치하게 이론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³⁸ 이들 연구는 모국으로의 귀환이 반드시 탈디아스포라화(de-diasporization)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모국 내에서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재디아스포라화(re-diasporization)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3.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론

앞에서 논의한 디아스포라의 개념과 방법론은 재일코리안 연구에 있어 어떠한 유용성을 가지며 또한 어떠한 한계를 가지는가?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재일코리안 연구들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론이 제시해온 가능성과 재일

36 초기세대인 경우 모국에 대한 공통의 유대감이 정체성의 기반이라고 한다면, 오래된 디아스포라의 4세 이상의 경우는 모국과의 유대가 약하기 때문에 정주국에의 동화에 저항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디아스포라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Kim D. Butler, "Defining Diaspora, Refining a Discourse," p. 210.

37 Erik Olsson & Russell King, "Introduction: Diasporic Return," *Diaspora* 17(3), 2008, pp. 255~261.

38 *Diaspora* 18(1/2), 2009의 기획 논문들을 참조.

코리안 연구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자. 재일코리안을 디아스포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마도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디아스포라로서의 재일코리안에 대해 주목한 것은 재일코리안 연구자들의 연구에서도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다.³⁹

정부 통계에 따르면 재일코리안의 규모는 약 90만 명으로, 2013년 현재 710만 명을 넘어선 전체 재외코리안 가운데 12.73%를 차지하며 중국(36.70%)과 미국(29.82%) 다음으로 큰 재외코리안 집단이다.⁴⁰ 이 중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에 346만 명(49.44%)이 집중되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구소련지역인 CIS지역을 유럽으로부터 분리하여 보면 이 지역의 재일코리안이 약 50만 명으로 전체의 8% 정도를 차지하게 된다. 이들이 동북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로의 이차 이산임을 감안하면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약 58%가 동북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⁴¹ 이는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가 디아스포라 개념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음과 동시에, 식민지 지배의 유산과 냉전과 같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역사성에 의해 그 특수성이 규정되어왔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이 절에서는 앞서 소개한 디아스포라의 개념과 다양한 이론적 시각에 의거하여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론을 살펴본다.

39 일본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재일코리안 당사자들에 의한 민족이주 및 정주의 역사발굴과 기록이 다각적으로 진행되어왔지만, 디아스포라 연구와의 연결은 시기적으로 국내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듯하다. 이는 전통적인 디아스포라 개념이 모국지향성이 너무 강하다는 데서 오는 거부감 때문이었던 것 같다. 디아스포라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본 내 대표적인 연구로는, 中国朝鮮族研究会, 『朝鮮族のグローバルな移動と国際ネットワーク』, アジア経済文化研究所, 2006; 権香淑, 『移動する朝鮮族: エスニック・マイノリティの自己統治』, 彩流社, 2010; 松田素二・鄭根植, 『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と東アジア社会』, 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13; 玄武岩, 『コリアン・ネットワーク』, 北海道大学出版会, 2013; 小林知子・陳天璽 編著, 駒井洋 監修, 『東アジアのディアスポラ』(叢書グローバル・ディアスポラ1), 明石書店, 2011.

40 이는 한국 외교통상부의 자료다. 그러나 이들 통계는 '코리안'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국적, 민족 등) 반드시 각국의 통계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같은 2013년 총재류외국인 통계로 본 조선·한국 국적자는 54만 9798명으로, 이 수치는 국적으로 분류한 것이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의 재일동포 수인 89만 2704명보다 훨씬 적다. 이는 미국의 경우도 비슷하여 인구조사에서 나타난 코리안의 수는 재미동포의 통계치보다 훨씬 적다.

41 허성태·임영연, 『글로벌 디아스포라와 세계의 한민족』, 북코리아, 2014, 50~51쪽.

1) 외부적 구조로서의 삼각구도

디아스포라를 모국-디아스포라-정주국의 삼각구도의 관계성 내에서 파악하는 시각은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각이다. 이 시각은 첫째,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모국(한국이든 북한이든)의 종속적인 하위 민족집단으로 간주하거나, 둘째, 재일코리안 문제를 일본의 국내정치 문제의 양자관계로 파악하려는 시각이 모두 불충분함을 시사하며,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모국과 정주국 양쪽과 동시에 영향을 주고 받는 독립된 행위자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한다.

선행연구에서 재일코리안 문제를 분석하는 지배적인 시각은 일본사회와 재일코리안의 대립 또는 공생이라는 이항대립적이고 양자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시각이다. 최근에는 재일-일본의 양자관계에서 벗어나 재일코리안의 지방참정권 문제를 일본-디아스포라-한국의 삼각구도 내에서 이해하려는 연구⁴²도 나타났다. 그러나 전통적인 삼각구도는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둘러싼 외부구조를 이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전통적인 삼각구도는 하나의 단일한 모국과 디아스포라의 민족적 연대를 상정하지만,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모국의 존재가 불분명해지면서, 그러한 구도가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성격을 결정적으로 형성하게 된 전후의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⁴³ 디아스포라의 구성원이 분단된 한쪽만을 모국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도, 남북한의 대립과 경쟁은 디아스포라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예를 들어, 북한을 모국이라고 생각하는 조선적코리안도 한일관계의 전개에 영향을 받으며, 한국적코리안도 북일관계의 잠정적인 영향하에 있다. 따라서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이주 및 정

42 예를 들어, 히구치는 재일조선인의 지방참정권 문제를 일반적인 다문화국가와 소수민족이라는 양자관계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탈냉전기의 동유럽의 소수민족에 대한 브루베이커의 연구에 의거하여 일본-재일조선인-한국의 삼자관계, 특히 한일의 외교문제의 일환으로 분석하려 했다. 히구치 나오토, 김영숙 옮김, 『폭주하는 일본의 극우주의: 재특회, 왜 재일코리안을 배척하는가』,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2015; 樋口直人, 『日本型排外主義』, 名古屋大学出版会, 2014.

43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전쟁이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미친 영향을 “남북과 해외를 잇는 ‘관계사’” 속에서 파악하려는 김귀옥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김귀옥, 「분단과 전쟁의 디아스포라: 재일조선인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91호, 2010, 여름호, 53~59쪽.

주의 경험을 동아시아의 역사적·지정학적 맥락에서 고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삼각구도가 아니라, 일본-재일코리안디아스포라-경쟁적인 두 모국의 사각구도와 이 사각구도를 지배하는 전후 냉전 및 탈냉전의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다른 디아스포라와 마찬가지로,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에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모국이다. 다만 재일코리안의 경우 이 사각구도가 모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정주국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과거에 떠난 모국이 동아시아의 냉전구조에 의해 두 개의 적대적인 모국으로 분단되면서 재일코리안의 통일된 모국은 상실되었다. 또한 전후의 남한과 북한은 서로 적대적이었을 뿐 아니라,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각자가 유일한 모국으로서의 주권을 주장해왔다.⁴⁴ 북한은 일본과 외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찍부터 재일코리안의 모국으로서 지원과 보호를 자청했고, 일본 내 재일코리안 조직을 지원하면서 남한에 대해 우위를 점했다.⁴⁵ ‘해외공민’으로서의 지위 부여와 민족학교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북송사업 등을 통해 북한은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에게 실감할 수 있는 모국으로서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권위주의적인 체제와 적대적 북일관계는 결국 재일코리안에게 초국가적인 이동의 자유 및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지 못했다. 북한으로 ‘귀환’한 이들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디아스포라가 되는 운명을 반복해야 했다. 무엇보다 북일관계의 악화 및 외교관계의 부재로 인해 세계적인 탈냉전기에도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으로써, 북한은 실질적인 모국으로서의 능력과 존재감을 상실해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북한과의 경쟁과 일본과의 외교관계라는 틀 안에서 재일코리안에 대한 정책을 펼쳐왔다. 1945년의 해방에서 한참이나 뒤늦게 1965년이 되어서야 한일협정을 통해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 합의하게 되지

44 실제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인구는 80% 정도가 한반도 남쪽에서 건너간 사람들이라고 한다.

45 북한과 재외공민정책과 재일조선인총연합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진희관, 「북한의 재외동포정책 연구: 재중총련, 재CIS동포, 재일총련, 그리고 재미동포 정책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55호, 2011, 53~106쪽.

만 지극히 제한적인 법적 지위에 그쳤고, 그나마 그 대상은 재일코리안 전체가 아닌 한국국적 보유자에 한정되었다. 그리하여 1947년 이후 일본 내 외국인인등록령(이후 외국인등록법)에 따라 ‘조선적’으로 등록되어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된 조선적 코리안은 한국의 재일동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스스로 한국국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재일코리안만이 한국의 ‘재일동포’가 되었다.⁴⁶

한국 정부는 이후에도 꾸준히 북한을 의식하여 조선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대신 ‘한국’이라는 외국인등록을 장려하며 재일코리안을 포섭하려 했고, 민단을 통해 남북경쟁의 대리전을 펼치게 함으로써 재일조선인사회에 한반도의 남북분단 구조가 구체적인 형태로 투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⁴⁷ 탈냉전기의 재외코리안 정책에서도 조선적 재일코리안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인 원칙이 크게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⁴⁸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와 한국으로의 이동의 자유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내걸고 재일조선적 코리안에게 한국국적으로의 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재일코리안의 인권을 고려하기보다는 재일사회에 대한 북한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냉전 논리의 연장으로서의 측면이 강하다.⁴⁹

이와 같이, 해방후 70여만 명의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식민종주국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에 의해 외국인(법적 효과에 의한 디아스포라화)이 되고, 이후 남북한의 재일코리안에 대한 상호견제적인 정책과 북일·한일 관계가 상호작용한 결과 형성된 것이다. 남북한은 재일조선인을 대상으로 통일된 정책을 고민한 적이 없으며 체제 유지의 논리에 따라 대립적이며 경쟁적인

46 오가타 요시히로, 「재일조선인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과 인식」,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8, 448쪽.

47 오가타 요시히로, 「재일조선인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과 인식」, 449쪽.

48 1997년 재외동포재단법과 1998년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명 재외동포법)에서 재외동포의 정의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하여 사실상 중국과 구소련 동포, 그리고 조선적 재일동포를 제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재외동포의 범위에 대한 논란을 가져와, 이후에 문제가 되었던 제2조(정의)의 규정을 수정하여 재외동포를 재외국민과 외국적 동포로 분류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 다’라는 규정을 두어 그 범위를 넓혔다.

49 예를 들어, 조경희는 한국사회에서 재일조선인을 여전히 ‘위험한’ 동포로 생각하며, 출입국정책도 그러한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경희, 「탈냉전기 재일조선인의 한국이동과 경제정치」, 『사회와 역사』 제91집, 2011, 61~98쪽.

정책[때에 따라 해외자원으로서 포섭하거나 정주국에 일임하는 기민(棄民)]을 반복해왔다. 때로는 북송사업과 같이 일본과 북한의 이익이 부합하기도 하고,⁵⁰ 때로는 한일협정과 같이 한국과 일본의 이익이 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이 사자구도 내에서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는 모국의 지지를 얻어 정주국 일본에 대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집단이 되기도 어려웠으며, 그렇다고 독자적으로 모국의 정책에 영향력 있는 집단이 되지도 못했다. 오히려 일본에게는 재일코리안에 대한 ‘분리통치’(divide and rule)의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고립과 공격적인 대외정책으로 인한 최근의 북일 간의 긴장은 일본 정부의 총련계 코리안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암묵적인 방조로 이어졌다. 이는 사자구도 내의 재일코리안의 취약한 위치를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 디아스포라의 삼각구도는 모국과 디아스포라의 세력관계가 디아스포라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디아스포라의 모국과 정주국에 대한 분열된 충성심이 문제된다. 그러나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경우에는 디아스포라에 대한 모국의 대립적인 경쟁이 모국과의 연대를 분열시키고 디아스포라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구조를 형성했다. 이 구조는 21세기까지 지속되며 동아시아 속의 재일코리안의 위치를 규정하고 있다.

2)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정체성

재일코리안의 정체성 연구는 에스니시티(소수민족성)와 네이션(조국지향)을 두 축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후쿠오카(福岡)의 “이화(異化)지향 대 동화(同化)지향”,⁵¹ 또는 서경식의 “에스닉 마이너리티인가 네이션인가”⁵²는 모

50 북한은 국가건설을 위한 노동력과 자원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일본은 방대한 빈곤인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 보았다. 테사 모리스 스즈키, 한철호 옮김, 『북한행 엑서더스』, 책과함께, 2008.

51 후쿠오카는 일찍이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이화(異化)지향과 동화(同化)지향의 양 극단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정도에 따라 다섯 가지(조국지향, 동포지향, 공생지향, 개인지향, 귀화지향) 형태의 정체성을 유형화했다. 福岡安則, 『在日韓国・朝鮮人』, 中公新書, 1993.

두 이러한 이항대립적인 인식들의 대표적인 예다. 이 이항대립적인 인식들은 일본 내 소수민족으로서 ‘재일’(在日)의 현실을 중요시하여 일본사회 내에서 공생의 길을 택함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모국과 민족적인 공동체를 유지하며 모국귀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정주국에서 외국인으로 존재할 것인가의 선택을 강요한다. 이러한 대립축 속에서 재일코리안의 국적과 민족명은 두 지점 중 어디에 정체성을 두느냐를 드러내는 중요한 표식으로 인식되어왔다.⁵³ 조선적을 유지하며 일본식 이름(通名)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가장 민족지향적인 태도를 의미하며, 동시에 일본의 식민주의와 차별에 대한 저항을 실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받아들인 마쓰다도 코리안 디아스포라 집단이 공동성(생활)을 형성하는 핵심 자원은 에스니시티(민족성)와 내셔널리티(조국)라고 하였으며, 따라서 재일코리안 연구에 서구의 문화학자들이 주장하는 초국가적 문화 재창조/상상력을 중심으로 하는 정체성 이론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한다.⁵⁴

그러나 소수민족성과 모국을 동시에 사유하고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핵심이다. 문제는 마치 이것이 양자택일할 수 있는(해야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왔다는 것이며, 그러한 선택을 강요하는 구조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정주국 일본에서는 일본인=보편으로 두고 이에 대조적인 카테고리로 비일본인=비일본국적=‘특정민족’을 설정하여 재일코리안을 특정민족집단으로 특수화, 타자화했다. 이름이나 문화(예를 들어 음식이나 복장), 또는 ‘조선적’은 그러한 타자성을 각인(mark)하는 기호였다. 이러한 인식들은 근대 이후에 형성된 민족=국가, 즉 민족국가를 규범으로 두는 것에서 비롯되고, 재일코리안의 존재양식이 이러한 근대국가적인 삶의 규범과 불일

52 서경식, 「재일조선인이 나아갈 길: ‘에스닉 마이너리티’인가 ‘네이션’인가」, 『창작과 비평』, 1998, 겨울호.

53 그러나 국적과 민족명도 개인의 모국과 민족에 대한 정체성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 민족명 및 통명, 혼명 등의 다양한 실천이 존재하며 그에 대한 의미부여는 다양하다. 한영혜, 「‘민족명’ 사용을 통해 보는 재일조선인의 아이덴티티: ‘민족’의 한계와 새로운 의미」, 『일본연구논총』 27집, 2008, 815~832쪽. 또한 이번 호의 리홍장의 논문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보는 시각」 참조.

54 松田素二·鄭根植 編, 『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と東アジア社会』, 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13, v쪽.

치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다름=차별로 위치지어졌기 때문이다. 민족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민족으로서 국가 밖의 민족집단과 정서적·물질적 유대를 유지하는 디아스포라는 그 존재 자체가 민족과 국가의 일치를 주장하는 단일민족국가의 통합적 정체성에 배치된다. 일본도 모국도 이러한 단일민족국가를 명시적으로 지향하였고, 이때 디아스포라는 그 어디에도 온전히 소속되지 못하게 되어, 디아스포라적인 정체성은 부정적이고 불완전한 것이 된다. 재일코리안 지식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집 잃은 자’(homeless)나 ‘난민’ 개념도 국민국가라는 집을 가진 시민과 대비되는 결핍의 주체를 상징하는 것이다.⁵⁵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국지향이든 동화지향이든 모든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은 언제나 불완전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체성은 단일하고 불변적인 것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조국’이나 ‘민족’도 결코 단일하고 고정적인 실체가 아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이상적 모국은 상실되었고, 재일코리안에게 있어 모국은 미래의 통일된 한반도에서부터 구체적인 현실의 정치체제인 한국이나 북한까지 매우 다양하다. 재일코리안 내부에서도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으나 원래의 출신지나 부모의 고향이 남한인 경우, 국적은 한국이지만 북한을 심정적으로 더 가까운 모국으로 여길 수도 있다. 1세대의 재일코리안에게는 아직도 모국이 과거 자신이 떠난 ‘조선’인 경우도 많다. 조국과 모국, 그리고 고향이 일치하지 않아서⁵⁶ 동시에 복수의 모국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상적인 모국에 대한 향수를 정체성의 뿌리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단일하고 고정적인 것으로 사고하는 인식을 내에서는 민족과 동화 사이에 선택이 강요될 뿐 아니라 모국에 대한 상상에 있어서까지 단일한 선택이 강요된다.

민족정체성도 국적이나 혈연집단과 동일하지 않음은 자명하다. 일본인과의 결혼은 이미 재일코리안 간의 결혼의 수배에 달하며 일본국적으로

55 Sonia Ryang, "Introduction"; 서경식, 『난민과 국민 사이: 재일조선인 서경식의 사유와 성찰』.

56 서경식, 『난민과 국민 사이: 재일조선인 서경식의 사유와 성찰』.

귀화도 1990년대 이후 매년 만 명에 이른다. 일본국적의 코리안 재패니즈, 일본국적의 자녀를 가진 조선적 또는 한국적 재일코리안, 한국적으로 귀화한 일본인 배우자 등은 국적과 혈연이 모두 ‘순수하게’ 코리안인 경우는 이미 소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현실에서 혈연이나 국적이 ‘객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함은 물론이고, 민족에의 소속을 나타내는 표식도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의 기반이 되지 못한다. 이는 안정적이고 단일한 민족적 정체성은 오히려 환상에 가까울지 모르며, 모두가 복수의 소속을 동시에 가지는 ‘더블’⁵⁷의 정체성이 현실에 가깝다는 것을 시사한다.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이 본질적으로 복수적이고 하이브리드적인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불완전성을 경계에 위치하는 존재로 긍정할 수 있게 된 것은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이 가져온 긍정적인 제3의 정체성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모국과의 만남과 소외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⁵⁸ 조정희는 한국으로 귀환이주를 한 재일코리안들의 다양한 정체성 정치의 실천을 기록하면서, 모국으로 귀환한 재일코리안들은 한편으로 그들을 이방인으로밖에 받아들이지 않는 모국에 대한 실망과 소외감을 겪게 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 재정립, 적극적인 복수 정체성 전략 등의 다양한 정체성 정치를 실천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들에게 한국은, “단순히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걸고 ‘귀환’하는 곳이 아니라 확장된 생활공간이며, 자신의 이쪽도 저쪽도 아닌 점을 활용하여 자신의 불안정성을 오히려 긍정적인 자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 장소”로 재인식된다.⁵⁹ 이때 태어나고 자란 정주국 일본에서 쌓아온 언어나 정서적 유대 및 문

57 일본에서의 ‘더블’에 대해서는 이번 호의 리홍장의 논문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보는 시각」을 참조. 리홍장에 따르면 재일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더블이라고 명명하나, 이 글에서는 혈연적 의미보다 문화적인 의미로, 또 순혈주의적인 단일정체성을 거부하는 복합적인 복수의 정체성의 의미로 넓게 사용했다.

58 예를 들어, 권숙인, 「디아스포라 재일한인의 ‘귀환’: 한국사회에서의 경험과 정체성」, 『국제지역연구』 17권 4호, 2008, 33~60쪽; 조정희, 「탈냉전기 재일조선인의 한국이동과 경제정치」, 『사회와역사』 통권 제91집, 2011.

59 趙慶喜, 「ポスト冷戦期における在日朝鮮人の移動と境界の政治」, 松田素二・鄭根植 編, 『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と東アジア社会』, 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13, 116쪽.

화자본은 새로 만난 모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가는 데 주요한 자원이 된다.

클리포드가 지적한 대로,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근원인 집단적인 역사와 상실감의 공유는 오히려 어떠한 경계선으로 제한된 영토(bounded territory)로 통합될 수 없는, 따라서 국민국가의 영역과 경계로 축소될 수 없는 일종의 대안적 공론장(alternate public spheres)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열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⁶⁰ 이는 국민국가와 다른 존재로서 국민국가의 내부에서 살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국가의 시공간 밖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공동체의 의식인 것이다. 이때 불완전하고 집 잃은 자의 정체성은 정주국의 ‘일본국민화’ 압력, 그리고 두 모국의 대립과 경쟁을 상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전환될 수 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동시에 속하는 존재로, “일본에서는 외국인 주민으로서, 한국에서는 재외국민으로서, 주체적으로 두 나라에 속하고 관여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하는 ‘탈근대적’ 정치적 주체로서의⁶¹ 미래상이나, ‘국가(국적)≠정체성’을 전복적으로 사유하면서 국가 또는 민족으로 환원되지 않는 제3의 ‘재일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의 탐구⁶²는 그러한 가능성의 예다.

3) 복수(複數)의 역사로서의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일코리안의 정체성을 본질화하는 위험을 벗어나려는 시도로 정체성의 기반을 혈연적 민족이나 국적이 아닌 디아스포라로서의 공유된 역사에 두기도 한다. 그러나 동일한 피해의 역사나 일률적인 식민지 경험을 공동체 연대의 근거로 할 때, 그 역사와 경험을 본질화하여 이를 공유하지 않은 세대

60 James Clifford, “Diasporas”; Paul Gilroy, *There Ain't No Black in the Union Jack: The Cultural Politics of Race and Nation*, London: Hutchinson, 1987.

61 이성, 「한국의 재외국민, 일본의 외국인 주민」, 『황해문화』 제81호, 2013, 겨울호, 171~182, 182쪽. 또한, 이성은 국적과 참정권을 둘러싼 재일조선인의 세 가지 삶의 양식을 해외공민, 정주외국인, 귀화일본인(조선계 일본인)으로 분류하는데, 각각의 논리를 살펴보면 남북한과 일본의 재일코리안에 대한 제나라의 ‘국민화’ 압력을 짐작할 수 있다. 이성, 「재일조선인과 참정권」, 『황해문화』 제57호, 2007, 겨울호, 76~102쪽.

62 김종곤, 「‘재일’ &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지향성: 재일조선인 3세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59, 2014, 31~57쪽.

와 개인이 소외될 위험이 있다.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공동체 내부의 다양한 개인의 위치만큼이나 공동체 내에서도 디아스포라화의 역사는 매우 다양하다. 이는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개인의 수만큼 복수화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는 단일 역사 담론은 다양한 내부집단의 디아스포라화への 과정에 대한 이해를 불가능하게 하여 억압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디아스포라 내의 다양한 권력축—계급, 젠더, 지역, 세대 등—은 이산과 식민지배, 전쟁과 분단, 정주국에서의 차별의 경험을 다르게 구성한다. 이러한 시각은 거시적인 구조의 변화와 지속되는 식민지주의가 각 디아스포라의 개개인의 사회적 위치에 의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각 주제들에 대한 어떠한 기회와 장벽을 만들어내는지를 보다 미시적으로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윤경원은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연구를 비판하며,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문제삼을 때에는 현재의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주의에 대한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문제는 민족이나 국가의 분열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차원을 넘어서 젠더, 계급, 민족의 문제가 중층적으로 얹혀 있는 식민지주의의 문제”라고 주장한다.⁶³ 이러한 역사쓰기를 위한 방법론은 하나의 거대 담론으로서의 디아스포라의 구조와 역사성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의 중층적인 권력구조 속에 은폐된 복수의 역사를 밝혀내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식민지 피해자로서의 디아스포라의 역사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의 지배적인 담론 속에서 침묵되어온 다양한 주체의 역사를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산, 정주, 모국귀환과 탈냉전기의 경계이동의 모든 측면에서 디아스포라의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⁶⁴ 남성이 가장

63 尹京媛, 「코리안·디아스포라—植民地主義と離散」, 小林知子·陳天璽, 『東アジアのディアスポラ』, 明石書店, 2011, 238쪽.

64 재일코리안 사회 내부뿐 아니라 한국의 재일조선인 표상 속에서도 여성은 부재하거나 남성 시각의 대상으로만 존재했다. 조경희, 「‘탈냉전’기 한국사회의 재일조선인 인식과 젠더」, 제2회 Korean Diaspora Women's Studies 심포지엄 자료집 『코리안 디아스포라: 젠더, 계급, 민족』,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2007, 33쪽.

으로서 자발적·비자발적인 노동력으로 고향을 떠난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여성은 남성의 가족으로서 먼저 떠난 남성가족을 찾아 이주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⁶⁵ 결혼에 실패하거나 남편을 잃어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모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도일하는 여성도 많았으며, 식민지기에 위안부였던 이들은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주지에서 여성은 남성노동력의 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기제로 인식되었다. 이렇듯 디아스포라화의 과정은 젠더질서 및 성별규범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정주를 통한 공동체 형성 과정도 마찬가지다. 재일코리안 내부의 가부장적 민족주의가 같은 민족의 여성 억압을 합리화해왔음은 재일코리안 여성들에 의해 신랄하게 비판받아왔다.⁶⁶ 재일코리안 1, 2세 남성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 중에는 조선의 가부장적 문화를 존중하여 진정한 ‘조선인 아내’가 되려 노력한 여성들도 있었다.⁶⁷ 정주국사회의 민족화, 주변화 방식 역시 젠더화되었다. 민족학교의 여학생들은 치마저고리를 착용하여 민족성을 나타냈으나,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 거리에서 험한세력의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듯 공동체 내부에서 소수이거나 주변화된 이들의 역사는 지금껏 주류 담론에 묻혀왔으나, 이들도 디아스포라의 또 다른 역사로 자리매김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디아스포라화의 다양한 과정에 대한 탐구는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모국의 역사와 다면적으로 얽혀 있음을 밝힐 수 있다. 북한으로 귀환을 선택한 이들 중 다수가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삶의 터전을 찾기 어려운 이들이었다는 점은, 한국의 근대화가 재일코리안의 인적·물적 자원을 필요로 했을지

65 이정은, 「식민제국과 전쟁,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삶: ‘우토로’ 지역 재일조선인 1세 여성의 정착과 생활」, 『한국사회학』 45(4), 2011, 169~197쪽. 이는 다른 동아시아 코리안 디아스포라에도 적용된다.

66 정영혜, 송연옥, 김부자 등 재일코리안 페미니스트가 대표적이다. 김부자, 「HARUKO-재일여성, 디아스포라, 젠더」, 『황해문화』 통권57호, 2007, 겨울호, 117~147쪽. 또한 재일코리안 내의 성소수자들은 젠더, 민족, 섹슈얼리티의 억압구조 내에서 민족집단과 일본 양쪽에서 주변화되는 위치에 있음을 토로한다. 이번 호의 김우기의 특별기고문 「재일조선인 페미니즘을 향하여」 참조.

67 야마시타 영애, 『내셔널리즘의 틈새에서』, 한울아카데미, 2012.

언정 이들을 진정으로 포용하려는 의사는 없었음을 반증한다. 제주 4.3사건과 같은 한국 내의 분쟁은 해방 후의 일본이주를 촉진하여 재일 디아스포라화를 가속화하기도 했다. 이렇듯 동전의 양면으로서의 모국과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역사는 계속되는 식민지주의와 해방 후에도 끊임없이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재생산되는 역사 및 정치구조를 드러내며, “해방 후의 한국사회가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역사 위에서 만들어졌다는 점”⁶⁸을 드러내준다.

탈냉전기를 맞아서도 재일코리안의 냉전기의 디아스포라적 성격은 지속되고 있으며, 재일코리안의 대부분은 자유로운 초국가적 이동주체가 되지 못했다. 일본국적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많은 이가 실질적인 ‘비이동성’에 묶여 있다. 모국으로의 귀환이주마저 제한적으로밖에 허락되지 않는다. 한국과 북한에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며, 국적에 따라 여행의 범위가 결정된다. 조선적 코리안에 대한 여권 문제와 한국의 여행증명서 발급 제한, 일본 정부의 재입국 허가 등은 아직도 재일코리안을 엄연한 냉전의 현실 속에 묶어두는 요소다. 이들을 제한적인 이동주체로 만들고 있는 것은 일본뿐 아니라 모국인 한국과 북한이기도 하다는 점은, 재일코리안의 디아스포라적인 성격을 밝힐 때 선명하게 드러나는 한반도의 자화상이다.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재일코리안의 역사와 현재를 디아스포라론에 입각하여 고찰하는 유용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디아스포라론은 공간축으로는 모국-디아스포라-정주국의 삼각구조 내에서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연결되는 민족단위로서 디아스포라의 특수한 정치적 입지와 초국가적인 정체성에 주목한다. 시간축으로는 이주의 동기 및 과정, 나아가 정주와 모국귀환 및 다른 지

68 尹京媛, 「코리안·디아스포라植民地主義と離散」, 222쪽.

역의 디아스포라와의 네트워크와 같은 거시적인 이산과 정주의 역사에 대한 시각을 제공한다. 재일코리안을 시공간을 포함한 디아스포라의 개념으로 보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역사적 구조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재일코리안의 역사와 정체성을 모국 및 정주국과의 관계라는 보편적인 분석틀 내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에서 필자는 특히 남북한이 적대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동아시아적인 특수성에 주목하여,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이해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전통적인 디아스포라의 삼자구도가 아닌 *남북한-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일본*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 사자구도 내에서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전후에도 디아스포라화가 심화되는 과정을 겪었으며, 이 역사는 다양한 디아스포라 주체들의 복수(複數)의 역사를 듣고 고찰함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역사는 세대, 젠더, 계급과 교차되는 복합적인 정체성뿐만 아니라 (남북한에의) 귀환의 경험을 통한 새로운 탈/재디아스포라화의 역사 및 재일코리안에게 디아스포라적인 삶을 지우고, 남북한의 분단가족에게 또 다른 디아스포라적 삶을 강요하는 21세기의 한반도의 현실까지 포함한 역사가 될 것이다.